

시중금융 전환 등 실적 성장… iM금융 황병우 ‘연임 도전장’

회추위, 회장 선임절차 돌입

내년 3월 임기 종료… 연내 후보 추천
업체, 황 회장 연임 가능성에 무게
사측, 내부 6명·외부 9명 후보 관리

iM금융그룹의 전국구 금융 전환을 이끈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이 연임에 도전한다. 첫 임기 동안 실적 성장을 이끈 만큼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안팎의 평가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iM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지난 27일 회의를 개최하고 차기 회장 선임에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024년 취임한 황병우 회장 임기가 내년 3월 초 종료되는 만큼, 올해 12월까지 최종후보자를 추천한다는 방침이다.

황병우 회장은 연임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지만, 금융권에서는 황 회장의 연임 도전을 확신하는 분위기다. 황 회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

/iM금융

장은 지난 2024년 iM금융그룹의 시중금융그룹 전환을 이끈 인물로, iM금융그룹 내에서도 전국구 금융으로의 과도기에 있

는 각 그룹 계열사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내부사정을 잘 아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앞서 iM금융지주는 지난 8월 차기 회장 선임에 위한 자격요건을 외부에 공개했다. 각 항목은 ▲업무 경험과 전문성 ▲그룹 비전 및 목표달성 역량 ▲조직관리 리더십 ▲대내외 신망 ▲도덕성·윤리의식·공정성 ▲연령 및 건강 등이다. 특히 ‘국내의 금융회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했으며, 최근 5년 이내에 최고경영자 또는 부회장·부사장 경력이 있는 자’라는 요건도 명시했다.

iM금융지주는 차기 회장 지원 자격을 갖춘 내부후보자 6명과 외부후보자 9명으로 구성된 15명의 차기 회장 후보군을 관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의 명단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내부후보군에는 황병우 현 회장 외에 강정훈 iM뱅크 은행장, 박병수 그룹리스크관리총괄(CRO) 부사장, 천병규 그룹재무총괄(CFO) 부

사장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에선 황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황 회장의 첫 임기동안 iM금융의 실적 및 기업가치의 성장세가 두드러졌고, 전국구 영업의 기반이 되는 중·장기 사업의 지속을 위해선 안정적인 리더십의 지속이 필요해진다. 시중금융 전환 초기인 만큼 내부사정을 잘 하는 내부 후보군이 선임될 가능성이 크다. 황 회장은 가장 유력한 후보로 평가받는다.

금융권의 세대교체 바람은 변수지만 황 회장은 67년생으로 젊다. 최근 금융권은 임기 동안의 성과와 별개로 경영 쇄신 및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리더십 교체를 단행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도 폐쇄적인 금융권 지배구조의 쇄신을 압박하는 가운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KB금융그룹은 최근 양종희 현 KB금융 회장이 아닌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66년생)을 차기 회장으로 지목했다.

황 회장은 금융권의 세대교체 바람으로

부터 다소 자유롭다는 분석이다. 황 회장은 1967년생으로 현직 금융지주 회장 가운데 가장 젊고, 새롭게 KB금융지주의 지휘봉을 잡는 이 부문장보다도 1살 어리다. 또한 황 회장은 과거 ‘지배구조 모범관행’ 사례로 제시한 프로세스로 선임된 인물인 만큼, 정치권이 지목한 폐쇄적인 지배구조와도 거리가 있는 인물이다.

iM금융 회추위는 오는 11월 숏리스트(2차 회장후보군) 선정 이후 확정된 후보군을 공개할 예정이다.

조강래 iM금융 회추위 위원장은 “이번 선임 과정은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내·외부 후보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며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라며 “성공적인 시중금융 그룹 안착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최적의 후보를 추천해 회추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라고 말했다.

asj1231@metroseoul.co.kr



metro

카드·캐피탈·저축은행 CEO 13명, 연임·교체 ‘관심’

5대 금융 산하 CEO 13명 임기 올해 만료
임추위 역할 확대… 연임가능 어려워져

주요 금융지주사의 카드·캐피탈·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가 올 연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그룹(KB국민· 신한·하나·우리·NH농협) 산하 카드사·캐피탈·저축은행 CEO 13명의 임기가 올해 연말 만료된다. 사실상 NH농협카드와 KB저축은행을 제외한 CEO가 인사 대상이다.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는 박창훈 신한카드 사장, 김재관 KB국민카드 사장, 성영수 하나카드 사장, 진성원 우리카드 사장, 전필환 신한캐피탈 대표, 빈종일 KB캐피탈 대표, 기동호 우리캐피탈 대표, 김용석 하나캐피탈 대표, 장종환 NH농협캐피탈 대표 임기가 연말 마무리된다.

저축은행권에서는 채수웅 신한저축은행 대표, 양동원 하나저축은행 대표, 이석태 우리금융저축은행 대표, 김장섭 NH저축은행 대표가 연말 인사 대상이다.

이번 하반기 인사 특징은 대규모 CEO 인사가 이뤄지는 데다 자회사 CEO 선임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의 실질적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지주사를 제외하고 5대 금융그룹이 하반기 CEO 인사를 단행하는 계열사

는 총 55곳이다. 특히, 그간 지주사 중심으로 이뤄지던 자회사 CEO 선임 과정에서 임추위 역할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이진진 금

융감독원은 지난주 국내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자회사 CEO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자회사 CEO 선임 시 특정 계파나 친소 관계에 매몰됨 없이 능력에 기반한 적임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특히, 지주회사의 자회사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지추위)는 자회사의 임추위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간 금융권에서는 지주 회장이 교체되면 자회사 CEO 인사에도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초임 여부와 재임 기간, 실적 등의 변수를 바탕으로 연임 가능성을 가늠하기도 한층 어려워졌다. 최근 최대 실적을 거둔 KB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실패하면서 실적이 연임을 좌우하는 절대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는 사례가 나오면서다.

업계에서도 기존의 인사 관행이나 경영 성과만으로 대표이사의 거취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표이사의 연임 여부를 사실상 알기 어렵다”면서 “변수가 많아지면서 내부 분석이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지난 28일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넥스트 파이낸스 코리아2026’ 컨퍼런스에서 서기원 KB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부행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카카오 ‘디지털자산 시장’ 논의

‘넥스트 파이낸스 코리아’ 컨퍼런스

KB국민은행은 지난 28일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카카오그룹과 공동으로 ‘넥스트 파이낸스 코리아(Next Finance Korea) 2026’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스트 포인트: 서울(East Point: Seoul) 2026’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프라이빗 컨퍼런스는 국내외 주요 디지털자산 및 금융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급변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참여자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기원 KB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부행장과 이상률 KB국민은행 DT추진부장은 각각 기조연설과 토론 세션 발표자로 나서 새롭게 도래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도 금융의 본질은 신뢰라는 점을 강조했다.

‘KB의 디지털자산으로의 여정: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서 부행장은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고객이 안심하고 자산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금융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KB가 축적해온 신뢰를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해 파트너들과 함께 디지털 가치의 발행과 유통을 연결하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 부장은 토론 세션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은 새로운 금융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이자”라며 “은행은 준비자산 관리와 자금세탁방지 등 핵심적인 신뢰의 레이어(Trust Layer)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은행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실물 없는 카드결제’ 일평균 1조8000억

한은, 상반기 중 국내 지급결제동향
전년비 10.6%↑, 실물카드 결제 4배

올해 상반기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해 실물카드를 제시하지 않고 결제한 금액이 하루 평균 1조8000억원에 달했다. 실물카드 미제시 결제는 전년 동기보다 10.6% 늘어 실물카드를 직접 제시한 결제 증가율의 네 배를 웃돌았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중 국내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지급카드 이용액은 하루 평균 3조 777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6% 증가했다.

지급카드 이용액 증가율은 지난해 상반기 3.7%에서 하반기 5.6%, 올해 상반기 7.6%로 확대됐다. 개인·법인의 국내외 가맹점 결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현금서비스는 제외한 수치다.

전체 지급카드 이용액의 79.7%를 차지하는 신용카드 이용액은 일평균 3조 100억원으로 7.3% 증가했다.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이 2조 3650억원, 법인카드는 6450억원이었다.

체크카드 등을 포함한 직불형 카드 이용액은 7510억원으로 7.5% 늘었다. 선불카드 이용액은 160억원으로 규모는 작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43.6%에

달했다.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된 개인·법인 신용·체크카드 결제를 별도로 보면 실물카드를 제시하지 않은 결제액은 일평균 1조 7890억원으로 10.6% 증가했다. 실물카드를 직접 제시한 결제는 1조 4220억원으로 2.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실물카드 미제시 방식에는 카드 정보를 모바일기기에 미리 저장해 지문인식 등 간편 인증으로 결제하거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 번호 등을 입력해 결제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미제시 결제 가운데 카드 간편지급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52.6%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2%포인트 높아졌다. 간편지급서비스 중에서는 핀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비중이 72.0%로

카드사 서비스의 비중인 28.0%를 크게 웃돌았다.

대면·비대면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대면 결제액은 하루 평균 1조 8000억원으로 5.6% 늘었고 비대면 결제액은 1조 4000억원으로 8.6% 증가했다.

은행 계좌를 이용한 자금 이동도 크게 늘었다. 상반기 소액결제망을 통한 계좌이체 규모는 일평균 127조 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6.8% 증가했다.

전체 계좌이체의 92.5%를 차지하는 전자금융공공망 이체액은 118조 4000억원으로 28.8% 늘었다. 인터넷뱅킹과 기업이 급여·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는 펌뱅킹 실적이 각각 22.9%, 30.4% 증가한 영향이다.

/김주형 기자 gh471@